

영상 아카이브 [완주예술인 ON]

흠에서 찾는 영원한 운동 '한봉림' 도예가

자기소개

한봉림입니다.

도자기

도자기라고 하면 사용이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. 그 사용이라는 목적과 또 거기에 기왕이면 사용하는데 아름다운 표현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거죠. 어느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그분이 한 얘기가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. 도자기는 가장 추상적이다. 도자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. 그런데 지구상에 닮은 게 하나도 없어. 그렇죠? 항아리도 지구상에서 닮은 것도 없고 가장 추상적인 표현을 가장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조상들과 지금의 지혜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

작품세계

그런데 제 작품에서는 흠도 하나의 껍질을 벗겨줘야 된다. 기능만 담은 형태로서는 제한성이 있다. 그래서 하나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지금까지 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내 작업인데 그래서 영원한 운동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. 제 작품을 그래서 영원히 찾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. 흠도 제 모습을 찾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흠이 그림이나 돌조각처럼 작가에 의해서만 외부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. 본 모습도 찾아봐 줘야겠다. 하는 게 제 작품입니다.

영원한 운동

나는 영원한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원한 운동이라는 건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원하는 정신세계에 접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있던 것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 같아요. 찾을 뿐이지. 새롭게 한다는 건 그건 이미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기준이 경직되기 때문에 그건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새롭다는 거 보다 항상 찾는 행위. 그게 아닌가 싶어요. (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가요?)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군요.

영감

그런 건 없어요. 막걸리 한잔 먹으면 생각나니까. 아주 자연스러울 때 생각나지. 뭐 철학적이라던가 심오한 것을 갖고 했다면 경직돼서 안될 것 같아. 사람의 정신이 경직되면 표현도 경직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되죠.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자연스러운 모습, 자연스러운 나를 찾으려면 그런 경직된 사고가 생기면 버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

예술가들

인사동의 자유로운 작가들, 각 분야의 작가들 회화를 한다던가 음악을 하는 작가들, 문학을 하는 작가들 선배도 있고 후배도 많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. 그래서 많은 젊은 작가들과 어울리고 또 서울 친구들이 후배, 선배들도 집에 많이 와서 같이 담소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죠. 그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것 같아요. 다른 장르. 나는 구별을 안 해요. 지금 내 작업도 흠만 다루지 않아요. 그림도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의 표현도 하고 그걸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흠 재료 자체에 있어서 한정되는 그러한 작가가 되기보다는 오일 페이팅, 수채화, 돌, 도자기 전부 왜냐면

그거 하나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면 이 소재로 또 표현도 하고 그러는 게 예술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꽤 오래돼요.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나는 진짜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나보다 조금 더 후배들과 같이 어울리면 서로가 정신교류 또 표현해서 격려도 해주고

계획

새로운 걸 찾는 게 내 계획입니다. 그리고 즐겁잖아요?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. 그리고 작은 미술관은 여기 초등학교 많잖아요. 특히 초등학교는 그래도 그림 그릴 시간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미술 시간이 거의 없고 그러죠. 그런데 나는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애들부터 유치원 애들까지 그 시간에 그림 그린 것을 여기서 전시하고 보여주고 그림으로써 자기의 옛 모습을 옛날에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또 지금 현재 미래에 자식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작은 미술관 계획입니다. 그래서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애들 때부터 정말 여기오면 재미있다. 여기서 마음대로 앉아서 그림도 그릴 수 있다. 그림 그림 그려 놓으면 다음 주에는 내가 압정으로 붙여서 전시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. 애들 때부터 우리가 못한 자신감을 좀 붙여 넣어줘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적당한 나이가 돼서 느낀 겁니다.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작은 미술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거죠. 유명한 작가나 기대하는 젊은 작가 전시 만이 아니고 아무 그런 것 관계없는 진짜 소녀, 소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나중에 보면 낭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주면 가능할 거 같아요.

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?

야..여기가 내가 있으면 좋겠다. 여기다 가마 박고 여기서 도자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문득 그래서 거기 동네 분한테 누가 여기 터 좀 판다면 얘기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 도자기 가마 박고 딱 살기 좋은 거 같다.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로 들어왔죠. 그래서 완주는 나는 특별하게 나에게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. 내가 완주의 이곳을 선택했다는 거 그런데 선택한 거 자체도 내 의지가 아니고 그런 기회 이런 인연이 됐다. 그래서 나름대로 완주를 상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.
